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780-5688/9
<http://www.lawhome.or.kr>

가정상담

부부의 경제적 평등, 그 기반을 다지는 해



상담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난하고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 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 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요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야간상담 월요일 오후 6시 ~ 9시

특집 민법개정안 공청회

2002

2

통권 222호

여성인물 이야기 1, 2, 3

박정희 저 아이세움 2001년 발행



아동용 위인전 시리즈는 대체로 화려한 표지에 남자들의 영웅적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여자는 나이팅게일 신사임당 유관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장군이 탄생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제 21세기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위인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에 나온 ‘여성인물 이야기’ 시리즈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최초의 여성참정권 운동가 ‘수잔 B.앤터니’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의 이야기로 그들은 세상의 주인은 당연히 남성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태어나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인물들이다

1952년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이태영은 고통받는 여성들의 대변인이 되어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 불합리한 인습의 벽을 허무는데 평생을 바쳤다

평북 북진의 산골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동네 사람들이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7살 때 웅변대회에 나가 ‘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후 이태영은 열심히 공부하여 이화여전을 졸업하지만 결혼과 함께 암울했던 일제 시대의 시련 속에서 독

립운동가인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변호사’의 길은 멀어져 갔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32세의 주부로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변호사의 꿈을 이루며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한다.

1920년, 열 아홉 번 째 미국 수정헌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여성참정권이 보장되었는데 이것은 수잔 B. 앤터니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였다

수잔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여성들은 성경이나 읽을 줄 알고 계란이나 셀 수 있으면 된다면서 남자아이들에게만 나눗셈을 가르쳐 주었다 나눗셈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 수잔은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간청하지만 거절당하자 피를 내어 선생님을 속이고 나눗셈 수업을 몰래 듣는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수잔은 결혼도 포기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1851년에는 여성운동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과 만나 노예해방운동과 결혼한 여성의 재산권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1872년에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법을 어기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여 구속된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1948년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권운동가이자 왕성한 활동을 한 여성정치인으로 꼽힌다

엘리너는 1905년 프랭클린 펠라노 루스벨트와 결혼하여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 남편과 자신의 비서와의 연애사건을 겪으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는다. 1932년 프랭클린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엘리너는 퍼스트 레이디로서가 아닌 사회 정치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 사후에는 유엔 미국대표로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동 자 도서실장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한빛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차례

2002년 2월 통권 222호

4 이 달의 메시지 광배희

5 특집 민법개정안 공청회

12 연중기획 호주제 폐지를 향하여 (22) 박소현
우애령 칼럼 부부만세 (14)

13 연중기획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실 (23)

14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법률구조 법률구조부

15 인터넷상담 조경애

16 상담소 소식

18 지부 소식 강정일

19 상담 통계

20 교육원 2002 새 봄 강좌

발행인 겸 편집인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광배희
인쇄인 동아서적(주)대표이사 김원섭 / 발행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50-868)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회관 전화 780-5688 전송 780-0485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02. 2. 15(매월 15일 발행) / ISSN 1227-7568